

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장 수 익**

차 례

- | | |
|-----------------------|----------------------------------------|
| 1. 서론 | 4. 긍정적 전망과 서사의 빈곤 |
| 2. 창작의 주체 문제와 문학의 특수성 | 5. 결론을 대신하여 : '노동'소설의
쇠락과 새로운 방향 모색 |
| 3. 전형적 인물과 유형적 인물 |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980~90년대 한국 노동소설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창작 주체, 전형적 인물, 서사 구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 보면서 노동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 시기 노동소설은 운동으로서의 '노동'에 중점을 둔 노동문학으로 나타났는데, 현장에서의 노동 체험을 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되었으며, 노동조합 조직을 둘러싼 투쟁을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에 기반 한 시각으로 다루었다. 먼저, 전형적 인물을 그리려는 시도는 부분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많은 작품들이 유사한 전형을 제시하는 데 그침에 따라 유형적 인물을 그려내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서사

*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2015A143)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구성의 특징을 지녔으나 충분한 묘사 및 세밀한 서사 구성의 뒷받침이 부족한 채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여성주의적 시각을 접합하거나 노동자의 자기 성찰을 그려낸 것은 노동소설의 잠재적 가능성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노동문학, 노동소설, 전형, 전망, 사회주의 리얼리즘

1. 서론

노동은 의식주 등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연과 그에서 비롯된 대상들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 활동이 바로 노동이다.¹⁾ 노동은 인간이 낳는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본질로 의미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은 자본주의에 이르러 노동의 수단과 노동의 주체가 분리된 소외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기계와 같은 노동의 수단은 자본의 소유가 되며, 노동의 주체는 노동력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의 주체는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게 되며, 그 판매자로서 노동의 주체는 이른바 임금노동자가 된다. 임금노동자는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본질을 잃고 대상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²⁾

그러나 노동자는 대상화된 존재로서만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소외를 넘어 다시금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역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소유 관계에서 노동계급이 지닌 특수성에 기초한다. 노동력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기에 자본주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1) K.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상), 비봉출판사, 1989. 226쪽.

2) 로널드 L. 미크, 김제민 역, 『노동가치론의 역사』, 풀빛, 1985, 212-214쪽 참조.

유일한 계급이 바로 노동계급이기 때문이다.³⁾ 그러나 노동자가 다시 주체로 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쇠퇴) 과정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및 노동계급은 대상화된 채 잔존하느냐 새로운 주체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바, 이러한 갈림길에서 노동자와 노동계급을 주체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그 운동을 이끄는 조직과 그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이 요구되는 것이다.⁴⁾

노동소설은 이러한 노동자 및 노동계급의 상황을 그려내는 데서 비롯하였다. 유적 존재가 아닌 소외되고 대상화된 존재로 있는 노동자를 포착하기도 하고, 주체화하는 노동자의 상을 노동운동의 양상과 함께 그려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 소설사를 본다면, 1920년대 후반 및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한설야나 강경애 등의 소설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계급의 상황을 현실주의적으로 그려내는 성과가 거두어진 바 있다. 그러나 1930년 후반에 들어 군국주의화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노동소설의 창작은 극도로 제한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특히 남한에서는 이념적 억압이 지속됨에 따라 1960년대까지 노동소설은 거의 창작되지 못했다. 이후 노동소설의 흐름이 다시 나타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인데, 황석영, 윤홍길, 조세희 등이 노조가 불법화되어 있는 당대 현실을 대상으로 소외된 노동자의 현실을 깊이 있게 그려내었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은 대체로 아직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차원에 머물렀기에 혁명적 낭만주의나 당파성의 구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80년대 후반기부터 ‘노동’소설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의 대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창작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기의 자연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거친 후 노동소설은 현실주의를 성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지만, 창작의 주체, 전형성의 획득, 전망과 혁명적 낭만주의, 당파성의 구현 등의 사항에

3) 미하엘 마우케, 장수환 역, 『계급론』, 동녘, 1990, 140-141쪽.

4) 위의 책, 141쪽.

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⁵⁾ 이러한 논란은 노동소설이 다른 유형의 소설과 달리 사회 운동 및 실천 비평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에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무엇이 현실주의이며 무엇이 보다 이상적인 노동소설인가에 대한 운동적 또는 비평적 시각이 노동소설의 전개에 끊임없이 개입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소설은 자체의 논리보다 비평적 시각에 따라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1980~90년대 노동소설의 전개에서 주목할 것은 1992년 이후 급격히 창작이 줄었고 1995년 이후에는 노동소설은 한 시기에 발생하였다가 사라진 경향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다.⁶⁾ 비록 현실 공산주의의 몰락이 세계사적인 문제로 대두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노동소설이라는 소설의 유형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하의 노동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뜻밖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소설이 자본주의 시대의 서사 양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은 자본주의의 생산 양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요소가 결합한 노동소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 가장 대표적인 소설 유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글은 1980~90년대 노동소설의 행방을 쫓아가면서 왜 이 유형의 소설이 보편적인 소설 유형이 되지 못하고 특정 시기에 국한된 소설 유형이 되고 말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 이 시기 노동소

5) 대표적으로 조정환, 『‘문학성’ 이해의 제경향과 문학적 현실주의의 문제』, 『민주주의 민족문학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를 참조.

6) 가령 “1980년대를 화려하게 풍미하던 민중문학 작가들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침체와 침묵은 그들 모두가 이러한 신념과 가치의 시련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준다.(김명인, 『천하무적의 길』, 『한국소설문학대계』 87, 동아출판사, 1995, 493쪽.)”는 언급을 예로 들 수 있다.

7) 1980~9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하정일, 『80년대 노동소설의 성과와 전망』, 『대학문화』 12, 1990 ; 김한식,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31집, 2004 ; 김정숙, 『분류와 저항 담론을 통한 주제 형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53집, 2004 ; 박규준, 『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8 등이 있다.

설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창작 주체, 전형적 인물, 서사 구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노동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의를 기울인 것은 노동소설의 전개 및 소멸에 대해 이념적 아쉬움을 바탕으로 둔 낭만적인 관점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낭만적 관점이란 노동소설의 성과를 이제는 현실적 유효성이 없는 이념을 미처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기에 결국 후일담적인 차원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창작의 주체 문제와 문학의 특수성

노동문학이 ‘노동’문학인가 노동‘문학’인가라는 문제는 노동문학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이 논의에서 ‘노동’문학은 노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리고 노동‘문학’은 문학이라는 특수한 예술 범주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각 노동문학을 정의함에 따라 이른바 협의의 노동문학, 광의의 노동문학이라는 파생 범주로 노동문학을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⁸⁾

그러나 노동문학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두 가지 논의 방향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유형의 분류 기준을 놓고 볼 때, 노동문학은 소재의 범주로 볼 수도 있고 창작주체의 범주로 볼 수도 있음에도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뒤섞여 논의했던 것이다. 전자라면, 노동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들은 다 여기에 포괄될 수 있게 될 것이고, 후자라면 노동자가 아닌 전문 작가가 쓴 작품들은 노동문학에서 배제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학사 전반을 다룰 때처럼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노동문학을 소재의 범주를 기준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자연주의 또는 현실주의의 관점에

8) 홍정선, 『노동문학과 생산주체』, 『노동문학』 1호, 1988.1 참조.

서 노동을 다룬 모든 작품들을 두루 고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90년대의 경우에는 소재의 범주로만 파악할 수 없는 요소 곧 노동운동에 따른 문학운동의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점에 이 시기의 특수성이 있다. 노동 일반과 관련하여 나온 소설들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계된 소설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노동문학은 ‘노동’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노동문학의 중심 점을 문학과 운동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문학의 하위 범주인 노동소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듯싶다. 노동소설 역시 소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모든 소설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1980~90년대의 소설은 아무래도 창작 주체 및 ‘노동’에 기준을 두고 보아야 이 시기 소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작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문학의 특수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특수성 문제는 종종 작품의 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서, 문학 창작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자가 쓴 작품이 어느 정도 작품적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곤 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보다는 소설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그 때문에 노동문학의 서사물은 소설보다 수기나 르포 형식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와 관련한 예로 『노동해방문학』을 보면, 전기 권호들에서는 소설이 2편씩 발표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며, 5~6권은 아예 소설이 발표되지 않는다. 대신 노동자의 수기나 현장에 대한 르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수기나 르포는 허구나 상상이 억제되는 서사물이므로 현장에서의 운동 수준을 기본적으로 추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곧 노동 현장 자체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허구적 또는 이념적 차원의 상상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이 현장 경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기나 르포로는 노동 운동의 긍정적 전망이나 혁명적 낭만주의를 제대로 담아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⁹⁾ 더욱이 1992년 이후 노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와 르포는 전문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범주가 아닌 다

동자들의 수기나 르포가 발표될 공간조차 축소 내지 단절됨에 따라 이러한 서사물도 결국 거의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만다.¹⁰⁾ 반면에 노동문학에서 시는 1990년대 초까지 일정 수준의 작품량이 유지되며, 박노해 등의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1980~90년대 노동문학에서는 소설보다는 시가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곧 노동자라는 창작주체가 강조될 때, 소설보다는 시가 오히려 '노동'문학의 활성화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¹¹⁾

이처럼 소설이 일정한 문학 학습이 타 장르에 비해 더욱 필요한 때문에 '노동'문학의 주류가 되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할 것은, '노동'소설로 주목받은 작가 중 많은 경우가 작가 또는 대학생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직접적 체험을 거쳤다는 점이다. 김인숙, 방현석, 채희문, 안재성, 한백, 김한수, 김남일, 정화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들의 작품이 노동소설의 주요한 성과로 주목되었던 것도 일정한 문학 학습이 전제된 상태에서 현장의 체험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안재성의 《파업》을 보면, 문제적 개인으로서 학출 노동자의 가르침 또는 감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각성하고 이에 힘입어 노조가 결성되지만 사측의 와해 위협 앞에 노동자의 분신이 이루어지면서 노조가 유지된다는 줄거리를 지니는데, 이러한 우여곡절은 실제로 노조 결성과 파업에 참여했던 작가의 체험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¹²⁾ 또 김인숙의 <함께 가는 길> 역시 작가의 노동 및 파업

른 시각, 예를 들어 생활 속의 문학 또는 문학의 민주화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은 '노동'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 보고문학을 주요한 수상 분야로 제시했던 전태일문학상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이 분야를 폐지했다.
- 11) 이는 소설에 비해 시 '시'는 일반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작품 쓰기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 12) 다만 이 소설의 후반부는 서사 구성의 비약이라는 측면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뒤의 논의를 참조.

참여 체험이 근간이 되어 투쟁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소설로 의미 있는 작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경우들은 노동이라는 소재와 문학 수업이라는 두 요소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은 문학적 수업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였다는 사실은 문학의 특수성이 이념의 체득과는 다른 차원에서 ‘노동’문학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잘 알려준다. 곧 ‘노동’소설은 단순히 노동이나 이념을 강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쳐야만 선전 선동의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문학을 결합시켰던 작가들 또한 1992년 이후 ‘노동’소설로부터 멀어져 간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창작주체의 문제만으로 해명될 수 없을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창작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사적으로는 노동 현장과 분리되어 전문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거나 또는 설혹 노동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해도 노동‘운동’의 맥락과 멀어지고 말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많은 작가들이 한동안 작품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도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형상화 또는 여성주의로 주제를 옮겨갔던 것인데, 이를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본다면 반복되는 유사한 서사 구성을 헤쳐 나갈 동력을 더 이상 이념적 운동으로서의 노동 운동이 쇠락한 현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3. 전형적 인물과 유형적 인물

이제 ‘노동’소설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소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자장 안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

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이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형’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¹³⁾ 실제로 1980~90년대의 노동소설을 보면 노조 설립이나 유지를 위해 ‘뿔박을 뚫고 일어서는 노동자’의상이 빈번하게 제시되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형상은 이 시기 소설이 그려낸 전형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이 과연 전형적인 것일까? 또는 이 인물들에 대항하는 인물들은 전형적으로 그려졌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내기 위하여 ‘전형’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유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전형적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찍이 엥겔스에 의해 ‘전형적 상황과 전형적 인물’이 현실주의의 중심 요건임이 표명된 이래 ‘전형’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건으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루카치가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로서의 전형을 주장했을 때,¹⁴⁾ 이는 개별적 인간의 형상화 속에서 사회적 역사적 발전 경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형적 인물을 규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전형적 인물 개념에 따를 때 부적절한 형상화가 나타나는 이유도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원근법이 무력화된 무차별적 묘사로 알려진 자연주의적 상황과 인물 설정이 루카치의 지적대로 표현주의를 비롯한 현대 예술의 시초를 알려주는 것이라면,¹⁵⁾ 이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추상화하는 것이 되며, 결국 이 추상화 속에서 실제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적인 것으로 그려지게 된다. 곧 현대 예술에 나타난 모든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 역사적 맥락을 잃고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관계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13) ‘전형’에 대해서는 앤 제퍼슨-데이비드 로비, 김정신 역, 『현대문학이론』, 문예출판사, 1991, 228-229쪽 참조.

14) B. 키탈리활비, 김태경 역, 『루카치 미학비평』, 한밭출판사, 1984, 95쪽.

15) 게오르크 루카치, 황석천 역,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 『현대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34쪽.

그러나 이러한 부적절한 형상화는 루카치가 본 대로 자본주의 예술에만 나타나는 것일까. 오히려 전형적 인물을 그려내려는 과정에서 작가는 계급성과 당파성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역사발전에 대한 단선적 인식으로 인해 노-자 대립 관계를 원래부터 그려왔던 것으로 그려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노-자 대립 관계를 원래부터 그리한 것으로 그려낸 경우를 생동하는 인물로서의 전형과 구별하여 판에 박힌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유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전형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는 무엇을 들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변형되면 유형적 인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일까. 전형적 인물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 단계라는 틀 위에서 계급적 특성이라는 보편적 성격과 그 속에서의 개성적인 특질이 조화됨으로써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이 그려내려는 역사적 단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계급적 성격과 개성적 특질이 제대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판에 박힌 인물을 그려내는 차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러한 전형적 인물은 긍정적 전형 외에 부정적 전형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역사의 진전 방향을 구현하는 인물을 긍정적 전형이라 한다면, 부정적 전형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물 또한 계급적·개성적 면모를 띠지 못한 채 단순화되거나 추상화된다면, 판에 박힌 유형적 인물 차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1980~90년대 노동소설을 본다면, 대부분의 ‘노동’소설들은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며 노동의 제반 모순을 독립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회사의 방해를 뚫고서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통해 임금 상승이나 노동자 복지의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을 주요한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로 볼 때 노동소설은 노조의 설립 및 유지를 소설에 구현되는 역사적 단계의 현실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¹⁶⁾ 이러한 과제는 1990년 이후 이후 민중민주 계열의

‘노동해방’이라는 기치로 집약되는데,¹⁷⁾ 실제의 작품 활동에서는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는 슬로건 차원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급 모순에 따른 역사적 단계에 대한 파악 자체도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수준을 1990년대 초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설립과 활동에 회사는 구사대를, 권력은 경찰을 투입하여 탄압한다는 많은 노동소설의 주요 사건들이 노동운동과 다른 사회 운동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고립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을 못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 노동소설에서 계급적 성격과 개성적 특질이 조화되지 못하고 유형화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그 나름의 전형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노동자가 된 주인공이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가 차츰 계급의식을 각성하게 되면서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일견 입체적인 성격 변화를 많은 노동소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6) 이는 1989년 이후 ‘노동해방’을 내세웠던 당시 지도 비평의 기치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논의를 참조.

17) 범박하게 본다면, ‘노동’소설이 계급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해방을 통해 해소하려는 방향에 중점을 두려고 했다면, 김영현과 김하기로 대표되는 ‘분단’소설은 민족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보고 민족 자주를 통해 해소하려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PD-NL 계열의 대립만큼 명확한 대립 구조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시기 문학은 양대 모순에 대한 문학적 접근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1980~90년대 소설사에서 반드시 노동소설과 분단소설을 같이 논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18) 물론 한백의 『동지와 함께』처럼 조합주의나 경제주의를 벗어나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노동자의 계급적 각성과 노동자 및 노조 간의 연대를 드러내는 작품들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조 설립과 유지에 대한 지향은 이 작품에서도 계급적 연대 대신 고립된 형태로 나타난다.

필혁은 분노와 투지에 불타는 ‘까치’를 좋아한 반면에 촌놈은 늘 헤헤거리며 줄음에 겨워하는 고행석 만화의 주인공을 좋아했다. 같이 술을 한잔 걸치고 히프짝이 늘씬한 계집애를 따라다니다 재수없이 방법한테 혼이 난 일도 있었고, (중략) 그러던 녀석이, 작년 가을쯤이었을까. 평소보다 부쩍 말이 없어지고, 어찌다가 얘기를 하면 노동조건과 임금, 노동자가 처한 현실들에 대해 눈에 빛을 말하면서 얘기를 하곤 했다. (중략) 그러나 필혁은 웬지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자신의 서러운 삶을 다시 한번 곱씹는 것 같아 싫었다. 또 ‘산악회’가 등산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독서와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회사에 웬만큼 알려졌지만, 필혁은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돈없고 뺨없는 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그게 그거다”는 신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백, <동지와 함께>, 《새벽출정》, 녹두, 1990, 316-317쪽.)

한백의 <동지와 함께>를 보면, 이 소설은 필혁과 촌놈을 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 두 인물이 이해하고 노조 유지를 위해 농성하는 이웃 회사의 노조와 연대 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이 초점을 둔 것은 필혁이라는 인물인데, ‘돈 없고 뺨 없는 놈이 더 당한다’는 생각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자,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가지게 된 관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혁은 산악회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촌놈을 통해 차츰 각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각성 과정은 물론 KAPF의 초기 소설처럼 주인공의 몇 마디 말에 대번에 동의하면서 투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압력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망설임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구사태의 폭력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사건 전개를 통해 점진적이고도 필연성 있게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각성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주인공의 자발성이다. 타인의 말에 영향 받아 생각을 바꾸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살펴보면서 스스로 계급적 각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각성 과정이 투쟁과정과 겹쳐지면서 필혁은 자신만이 그러한 각성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

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각성에 이르게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노동자 간의 연대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물 유형은 부분적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많은 노동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곧 한 편 한 편의 소설을 놓고 볼 때에는 그 나름의 전형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만, 노동소설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각성된 노동자의 유형화된 형상화로 낙착되고 마는 것이다.¹⁹⁾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착취 시도가 경영진들에 의해 일어나고,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는 각성의 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주인공의 계급적 각성 과정은 여러 작품들에서 반복되면서 애초의 신선함을 벗어나 도식적인 차원으로 낙착되고 만다. 설혹 그러한 각성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투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이 강조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형화된 노동소설의 인물 창조 경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물의 유형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 인물들의 경우이다. 회사의 사장이나 고위 간부에서 사무직, 구사대 같은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인물들은 매우 평면적으로 제시되며, ‘짹새’로 호칭되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전까지는 한결같이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조직화된 후에는 이해타산을 내세워 노조에 대해 곁으로는 협조하지만 실상은 노조 파괴를 획책하는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한 부정적 인물들이 작품 내에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조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구사대처럼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사용자 편에 선 이들의 복잡한 내면은 거의 그려지지 않는 작품이 대부분이

19) 박규준은 이와 같은 노동소설의 특징을 각성과정으로 테마화하여 다룬 바 있다 (박규준, 앞책 4장 참조).

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인숙의 <다시 성조기 앞에 서다>와 정지아의 <햇살로 다시 서라, 친구여>이다.

그는 리처드에게 휴식시간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재혁의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그는 리처드의 푸른 눈을 볼 때마다 열 살 나던 때의 경기를 되살려 떠올려야만 했다. 그리고는 묘하게도 마사, 그 여자를 기억했다. 마사의 무릎 아래로 주저앉던 때의 그 굴욕감, 그러나 동시에 파고들던 그 따뜻한 안온함을.

그는 심정대로만 하자면 이 역할을 마다하고 싶었다. 마치 마사를 찌르고 싶었던 때의 그 심정처럼. 그러나 끝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는 이 역할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강하다. 종이 호랑이? 천만에! 세계의 미국은 힘을 잃어 갈지 모르나 한국에서의 미국은 영원히 강하다. 한 소년의 집안을 철저히 유린하고도 그 소년에게 노예됨을 자청할 수 있게 만들 만큼 미국은 강하다. (중략) 수화기를 들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오십이 넘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다. 이것은 강한 미국을, 더불어 자신을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행위일 것이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물결이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으나 그는 입술을 물었다. (김인숙,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 『한국소설문학대계』 85, 동아출판사, 1995, 338-339쪽.)

김인숙의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에서 단연 두드러진 인물은 미국인 사장의 하수인인 한국인 부사장 이상문이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노동자들의 과거를 상세하게 비추어주지 않는 대신, 이상문이 왜 노조 탄압을 위해 위장폐업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지의 연원을 이상문의 성장기를 통해 보여준다. 미군에 의해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고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여만 했던 아픈 경험을 지닌 이상문은 자선을 행하던 미국인 여성에게 굴복한 경험과 그 굴복이 준 안온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상문의 형상은 미국 또는 자본에 대한 관리직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부정적 전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요컨대 자본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으나 굴복이 주는 안온함을 새로

운 정체성으로 지니게 된 인물의 모습을 이 소설은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²⁰⁾

그리고 정지아의 <햇살로 다시 서라, 친구여>는 노동자 출신이나 말단 관리직에 있게 된 김주임의 내면을 중심 소재로 삼는다. 회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료 노동자를 괴롭히던 김주임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주동자를 밀고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김주임은 노조 설립의 중심인 송가를 밀고하지는 못한다.

그는 말없이 종이쪽지를 총무과장에게 넘겼다. 알콜중독자처럼 손가락 끝이 떨려왔다. 비겁한 것이야,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것이야. 어디선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외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종이쪽지는 이미 총무과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총무과장의 손에서 종이를 나꿔채 북북 찢어버리고 싶었다.(정지아, <햇살로 다시 서라, 친구여>, 『노동해방문학』 1989. 6-7, 426쪽.)

출세를 위한 것인가 입사 후부터 자신을 아껴준 송씨를 지킬 것인가의 기로에서 김주임이 보여주는 고뇌는 오히려 이 인물을 살아있는 형상으로 만든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김주임은 송씨를 밀고하지 않은 탓에 승진에 실패하지만, 송씨가 나타나 김주임을 포용한다. 자본이 제공하는 안온함을 끝내 거부하고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동료애를 바탕으로 되찾는 김주임의 형상을 통해 이 소설은 부정적 전형에서 긍정적 전형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김인숙이나 정지아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소설은 긍정적 전형이든 부정적 전형이든 전형성을 성취 또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유형적 인물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데 멈추고 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주요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다양

20) 유순하의 『생성』(1988) 역시 노동자의 시각 대신 중간 관리자의 시각을 가져와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면모를 그리는 것보다는 노동자상을 긍정적으로 그려내어 당면한 노동운동을 위한 선전 선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이념적 의무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형화됨으로써 노동소설은 결과적으로 자본가-노동자의 관계가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런 것으로 그리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긍정적 노동자상을 위해 부정적 인물들은 평면적으로 더욱 그려질 수밖에 없었고, 긍정적인 노동자상 역시 유형적인 각성 과정을 겪는 것으로만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본주의가 1980~90년대에 지녔던 시대적 특성도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채 사상되었으며, 동시에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풍자적 요소나 비극적 요소 등의 다양한 방법이 거의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할 수 있다.

4. 긍정적 전망과 서사의 빈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의 서사 구성이 지니는 특징은 비판적 리얼리즘과의 대비에서 드러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비록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 현실의 긍정적 전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루카치는 이른바 리얼리즘 정신으로 위대한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특히 초기)에서 총체성을 구현해낼 수는 있지만, 분업화되고 사물화된 자본주의의 특성상 ‘미래에 대한 확고한 원근법’ 없이 서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²¹⁾ 반면에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객관적 도정의 일부로서 사물과 세계의 연관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현실의 긍정적 전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이때의 긍정적 전망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른바 총체성의 작용으로

21) 게오르크 루카치,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98쪽.

서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루카치적인 전망 개념은 이른바 객관주의적인 것으로 비판받았지만, 서사 구성에서 역사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루카치는 긍정적 전망을 표현하려고 할 때의 오류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새로운 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그 본질을 언급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부분적인 사실을 과대평가하여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이다.²²⁾ 그렇다면 이러한 두 경우는 서사 구성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필자가 보기에 전자는 구체적 묘사가 부족한 급박한 서사 전개로 나타날 것이며, 후자는 서사 구성상의 과정에서 필연성이 부족한 비약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 개념을 1980~90년대 노동소설에 적용할 때 우선 문제시되는 것은 이 시기가 공산주의로의 진전은커녕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많은 노동소설들은 회사가 갈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사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로써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상황이 굳건히 유지될 뿐 아니라 자본의 이익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해방이 역사의 필연이며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말해야 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서사의 모순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거나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조합주의적 또는 경제주의적 한계에 머무는 서사 구성을 낳는다. 곧 개별적이고 자연적인 저항을 넘어 조직적이고도 집단적인 계급투쟁을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빈약한 차원에 머물러서 인해 역사의 차후 단계로 나아가는 긍정적 전망에는 아예 이르지도 못한 채 역시 '빈곤한 긍정적 전망'의 단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소설은 개별 노조의 투쟁 또는 노조

22) 위의 책, 116-117쪽.

간의 부분적인 연대투쟁을 그리는 차원에 그치게 된다.

이제 이상과 같은 논의에 비추어 1980~90년대 노동소설의 서사 구성의 구체적 양상을 안재성의 《파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대영제강을 무대로 학생 출신의 위장취업자 홍기가 고참 노동자 이상섭, 젊은 노동자 동연과 진영 등과 함께 ‘동지회’를 결성하고 비밀 모임을 가지면서 회사측과 공권력의 갖은 탄압과 해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건설하려는 투쟁을 그리고 있다.

새해를 맞아, 대영제강은 급속히 번창했다.

매일 거대한 트럭들이 일제 원자재와 미제 기계를 싣고 들어와 철조망과 와이어 로프를 싣고 나갔다. (중략) 일인당 생산 목표는 새해를 맞아 한층 높아졌고 기계는 기름 칠 새도 없이 돌아갔다. 그만두는 노동자가 속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보충되었다. 사무실 앞에는 연일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서성댔다. (중략)

철조망은 모두가 군수용이었다. 사막의 전쟁터와 휴전선이 대영제강 주주들의 주머니를 날이 갈수록 부풀려 주었다. 그러나 대영제강 노동자들은 연말 상여금으로 겨우 오만 원씩을 탈 수 있었다. 회사는 신징에도 기계를 돌렸고 구정 연휴라고 겨우 이들의 휴가를 주었다.(안재성, 《파업》, 『한국소설문학대계』 95, 동아출판사, 1995, 198-200쪽.)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번창과 이에 상반되는 노동 착취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자본의 이익이 증가하면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나아져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곧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증가한다는 고전적인 공산주의의 인식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23) 1990년 이후 『노동해방문학』의 비평에서 당파성 개념이 강조되지만 그에 대한 실천적 작품성고가 없었던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라는 선도 조직이 있었다 해도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의 ‘당’과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이른바 ‘보고 문학’ 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을 뿐 실제로 노동해방의 소설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90년대의 한국 자본주의를 무자비한 착취에 근간하였던 초기 자본주의 단계로 볼 수 있어야 현실성이 있게 될 것이지만 과연 그때의 한국 자본주의를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학적 형상화의 차원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이와 같은 자본에 대한 일면적인 파악이 일종의 선악개념으로 치환되어 회사는 악이며 노동자는 선이 되는 단선적인 갈등 구조의 차원에 머물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선한 노동자들이 악인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여 투쟁한다는 서사 구성의 기본 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이 작품은 결국 '노동'문학이 제시하고자 했던 사회 구조의 개혁 또는 혁명이라는 이상 대신 회사 내의 임금 투쟁 및 노동자 권리 획득이라는 조합주의적인 시각에 갇히는 한계를 빚게 된다.²⁴⁾

이와 함께 지적할 것은 이 작품이 지닌 구체적인 묘사의 부족이다. 물론 공장 내부나 인물의 모습 등에 대한 묘사가 상당한 부분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묘사는 노동자의 각성 및 조직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심 서사 자체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무관하게 제시된다. 다음은 그러한 묘사 부족의 한 예이다.

홍기는 모임 때마다 다른 지역이나 공장에서 나온 전단을 가져와 읽게 했다. 서울뿐 아니라 성남과 인천 등지에서 건너온 그것들은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소식들을 상세히 싣고 있었다. 노조를 만들거나 어용노조를 바꾸려다가 해고된 이들의 치열한 싸움이며 여공들을 구타하고 성폭행하는 구사대들의 횡포, 노동운동을 뿌리째 뽑으려는 정보기관들의 잔인한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동지회원들을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월 중순, 동지회에도 공단지역 해고자들의 점거농성 계획이 전달되었다. 비밀은 아니었다. 이미 수만 장의 전단이 지역에 뿌려진 상태였다. 홍기의 참가 제안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주동자는 이미 결정

24) 이후 서사 전개에서 조합주의적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려 연대투쟁 등의 요소가 제시되지만 기본적 서사에 덧붙여진 결과지에 지나지 않는다.

되었으니 동지회원들은 시위대의 일원으로 표시나지 않게 행동하기로 했다.(《파업》, 200-201쪽.)

《파업》에서 문제적 인물인 홍기는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모임을 주도하는데, 이 모임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이 일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서사 단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임의 핵심적인 양상은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 식으로 서술된다. 이 과정에서 동지회 회원들이 겪었을 현실 인식의 섬세한 변화는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채 홍기라는 인물의 활동만 두드러지게 그려지는 것이다. 물론 이후 장면에서 홍기와 노동자 간의 대화가 빈번하게 제시되지만, 그것은 홍기가 겪은 각종 사회 모순을 폭로하거나 노조 결성의 간고하고 긴박한 과정을 그려낼 때로 한정되며, 그조차 대화를 통해 상황의 진전을 보여주거나 작가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정도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작품의 후반부에 대해서이다. 대영제강 노조 설립을 위한 투쟁은 결국 구사대와의 충돌로 이어지고 파업과 농성이 와해의 위기에 처할 때 진영의 분신이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임규찬이 지적했듯이²⁵⁾ 서사의 비약이라는 문제가 있다. 비록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는 진영의 진심이 돋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서사 구성상 제기된 모든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한꺼번에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사실의 영향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서사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진영의 분신 이후 회사와의 협상 장면은 회장의 반공주의적 언사가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25) 임규찬, 『1980년대 노동운동의 소설적 모형』, 『한국소설문학대계』 95, 동아출판사, 1995, 599쪽.

진영이의 죽음으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도 인정했지만 약속했던 단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를 비롯하여 노조 간부 전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소. 자본가의 피는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소. 벌써 나흘째 농성이요. 놈들은 이제서야 발바닥이 닳도록 쫓아다니지만 이번만은 절대 허술히 타협하지 않을 거요. 아주 본때를 보여 줄 생각이요. 다시는 노동자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파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요. 소식을 들었겠지만 전국의 수천 개 공장에서 수백만 노동자가 일시에 일어섰소.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고! 더 이상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말라고! 마침내 우리 노동자가 일어난 거요. 노예의 사슬을, 짐승의 멍에를 우리 손으로 끊으려 일어난 거요. 공사장 막노동자로부터 대기업 노동자와 사무직까지, 교사와 방송국 직원들까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 외치고 있소.

지금 우리의 요구는 임금인상과 제도개선이요. 그러나 이 투쟁은 서곡에 불과하오. 우리는 얼마 안 가 반드시 외치게 될 거요. 임금노예제를 철폐하라고! 자본계급의 지배를 종식시키자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거요. 멈출 수가 없소. 그날을 위해 어서 나와 하나가 됩시다.(《파업》, 414-415쪽.)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작품 결말에서 대영제강 노조가 다시금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도 앞에서 지적한 비약적인 요소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승리에의 전망이 더욱 강화되어 임금인상과 제도개선이라는 조합 차원의 과제 성취를 넘어 아예 자본계급의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는 다짐을 전망으로 과감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충분한 서사 구성의 뒷받침 없이 슬로건 차원으로 제시되는 빈곤한 전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음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소설의 서사 구성은 《파업》의 작가가 가진 한계라기보다 이 시기 노동소설의 전반적인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발표된 노동소설의 맥락을 이어받아 발전시키

면서 1987년 노동대투쟁의 성과를 반영하는 작품 가운데 《파업》에 필적할 성과를 거둔 작품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파업》이 비록 서사 구성의 충분한 뒷받침은 받지 못했으나 그동안의 어떤 작품에서도 제시되지 못했던 전국 노조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연발생적인 투쟁에서 조직적인 투쟁으로의 전화를 그려내었던 이전 노동소설의 성과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파업》 이후 노조 설립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파업》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자본-노동의 단선적인 현실 인식 및 노동 해방을 위한 선전선동의 부담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곧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현실 인식은 충분한 묘사 없는 급박한 서사 구성으로, 운동에의 참여 및 선전선동에 대한 부담은 빈곤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노동’소설의 쇠락과 새로운 방향 모색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었던 노동소설이 쇠락하게 된 것은 이념의 쇠퇴라는 외부적 요인 외에 유형화된 인물과 빈곤한 서사라는 문학 내부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이념의 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작품들의 연속적인 창작은 노동소설의 쇠락을 미리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소설이 자체적인 변모를 도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계급적이고 운동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지만 그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조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 말 취소할 수 없어요?”

“시끄러워. 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원하는 대로 살라구!”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도 당신이 노동해방을 하겠다고, 착취체계를 끝장내겠다고 할 수 있어! 지금 당신 모습이 사장놈들하고 똑같다는 생각 안해봤어? 집에만 오면 당신은 사장이 된다구!” (중략)

“따지나 마나지, 안 그래도 집안일이 영망인데 직무대리까지 맡아봐.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어?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냐. 정도껏 하라구.”

(정지아, <동지의 집>, 『노동해방문학』 1989.12, 445-446쪽.)

먼저 살펴볼 변화는 노동 문제에 성 문제를 겹쳐 다루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정지아의 <동지의 집>에서는 자본가-노동자 대립 위에 남성-여성의 대립이 현실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공과 남편 기섭은 각각 자신의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인공에게 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다투게 된다. 주인공은 결국 노-자 대립의 모순과 함께 성 대립의 모순이 겹쳐지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기섭은 결코 남성 우위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데, 결국 이 성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전망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로 소설은 끝난다. 그러나 이처럼 성 대립의 모순이 현실의 또 다른 구조적 모순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노-자 대립과 달리 그 모순은 해결할 방향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의 변화는 노동자의 자기 성찰 문제이다. 이는 정화진의 <양지를 찾아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 명수는 세원전기에서 노조 사무장으로 활동하다가 이기적인 노조 구성원들의 외면과 회사의 충돌로 퇴사하게 된다. 그동안의 노동소설에서 모든 노조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 이 소설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결국 고구마 장수로 생계를 잇던 명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

난 민구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윤형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은 스스로 단정한 절망의 높이 너무 깊은 탓 아닐까요?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린 그 동안 동료들에게 걸맞지 않은 완벽함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했듯이 말입니다. 기실 윤형이나 나나 하등 다를 바 없는 결함투성이의 존재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우선 그 엄연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단죄하고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윤형이나 내가 겪었던 상처 중에 상당부분은 그런 불합리한 피해의식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피해의식?” (중략)

“같은 결함의 반복에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민구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코 동일한 반복은 아닐 겁니다.”(정화진, <양지를 찾아서>, 『한국 소설문학대계』 98, 동아출판사, 1995, 128-129쪽.)

명수의 고뇌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노동운동의 좌절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럴 때 민구는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모든 인간은 결함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완벽한데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불합리한 피해의식’ 때문에 과도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명수는 다시 노동운동을 해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힐 것임을 예감하면서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난다. 이와 같은 성찰은 실제로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이념 안에 감추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노동소설의 새로운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지식인적인 성찰 또는 후일담적인 성찰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성찰은 노동운동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내성적인 과제임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노동소설의 영역을 개척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면모를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노동소설은 급속히 쇠퇴한다. 특히 노동운동의 자체적 반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나아가 1990년대에 전국적인 노동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조들의 전면적인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설의 주요한 흐름이 되지 못했던 것은 지식인들이 후일담 소설이라는 유형을 만들어낸 것과 크게 대비되는 사항이다. 특히 IMF사태로 말미암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 노동현실이 급격히 후퇴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노동소설이 그만큼 이념의 자장 안에 안주했었고, 그 결과로 보편적 소설 유형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문학사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소설 유형으로 한정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노동'소설이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제기되었기에 운동의 쇠퇴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소설이 쌓은 '문학'적 성과가 그만큼 유형적 반복적이었다는 데에도 주요한 이유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소설의 맥락이 제한적이거나 여성주의 소설에 접맥되거나 민중들의 자기 성찰적 소설에 접맥된 것은 노동소설이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을 선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노동 환경의 변화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에 대응하는 흐름이 박범신, 김재영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도 노동소설의 변천으로 이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노동문학』, 1988.1~1989.5
『노동해방문학』, 1989.4~1991.1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화론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
하정일, 『80년대 노동소설의 성과와 전망』, 『대학문화』 12, 1990.
김한식,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31집, 2004.
김정숙, 『분류와 저항 담론을 통한 주제 형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53집, 2004.
박규준, 『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8.
- B. 키랄리할비, 김태경 역, 『루카치 미학비평』, 한밭출판사, 1984.
앤 제퍼슨·데이비드 로비, 김정신 역, 『현대문학이론』, 문예출판사, 1991.
게오르그 루카치 외, 황석천 역, 『현대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 K.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상), 비봉출판사, 1989.
로날드 L. 미크, 김제민 역, 『노동가치론의 역사』, 풀빛, 1985.
미하엘 마우케, 장수한 역, 『계급론』, 동녘, 1990.

<Abstract>

Study on the Korean Labor Novels in Late 1980's and Early 1990's

Jang, Su-Ik*

This paper is written for the searching for 1980~1990's Korean labor novel, especially focused on the progression of labor novels and their sudden demice. In these labor novels, the primary authors were the peoples that have series of real experiences at various factories. They dealt with their experiences literarily coinciding the purpose that agitate the social movement for the liberation for labors. But their novels had exposed some problems in methodology for novel creation in social realism ; especially in terms of making typical characters and composition of narrative. These novels did not reach embodying typical characters and successfully presenting positive perspective for liberation for labors. For all that, these novels have a literature-historical significance, given that some works connected feminism novels and self-communion novels.

Key Words : labor literature, labor novel, type, social realism,
perspective, social realism

■ 논문접수 : 2017년 3월 19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13일

■ 게재확정 : 2017년 4월 17일

* Hannam University